

# 경북행복

# BRIEF

제15호 2017. 6. 1.

법 인 명 칭 (재)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재)경북행복재단 편창범  
주 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 E L 054-710-8814  
홈 페이지 www.ghf.or.kr  
연구 책임 오난숙(경북행복재단 보건정책팀 연구원)  
공 동 연 구 구차순(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승환(성덕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 지적장애인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방안

### 1. 지적장애인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이 필요

- 결혼은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족과 가정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있음.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이란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며,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결혼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편견은 더욱 심각함. 지적장애인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녀의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녀의 '성과 관련된 표현'과 '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드러내기를 불편해 하고 있음.(이민규, 2014)
- 지적장애인들도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한 성적 욕구와 더불어 자녀양육의 욕구가 있음. 김미옥 외(2015)의 사례연구에서도 사랑부터 임신까지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결혼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아이양육에 있어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 지적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가치 있는 생애사적 발달 과업의 경험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부분임.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 재가의 지적장애인 당사자 및 배우자, 그 주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결혼의 열악한 현실을 기초로 하여 결혼, 양육, 경제적 상황을 알아보고, 사례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욕구 확인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결혼에서부터 자녀의 양육 과정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지원과 그들의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욕구를 확인하고자 함.
-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적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지적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지적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지적장애인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라는 명칭이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490,406명이며, 남성장애인은 1,446,943명으로 58.1%, 여성장애인은 1,043,463명으로 41.9%이었으며, 이 중 지적 장애인은 189,752명(7.6%)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을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 장애인 수는 168,089명이었으며, 지체장애인 85,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청각장애인으로 18,600명이었으며, 지적장애인은 14,797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다섯 번째였으며, 8.8%로 전국의 7.6% 보다 다소 높았음.

[표 1] 등록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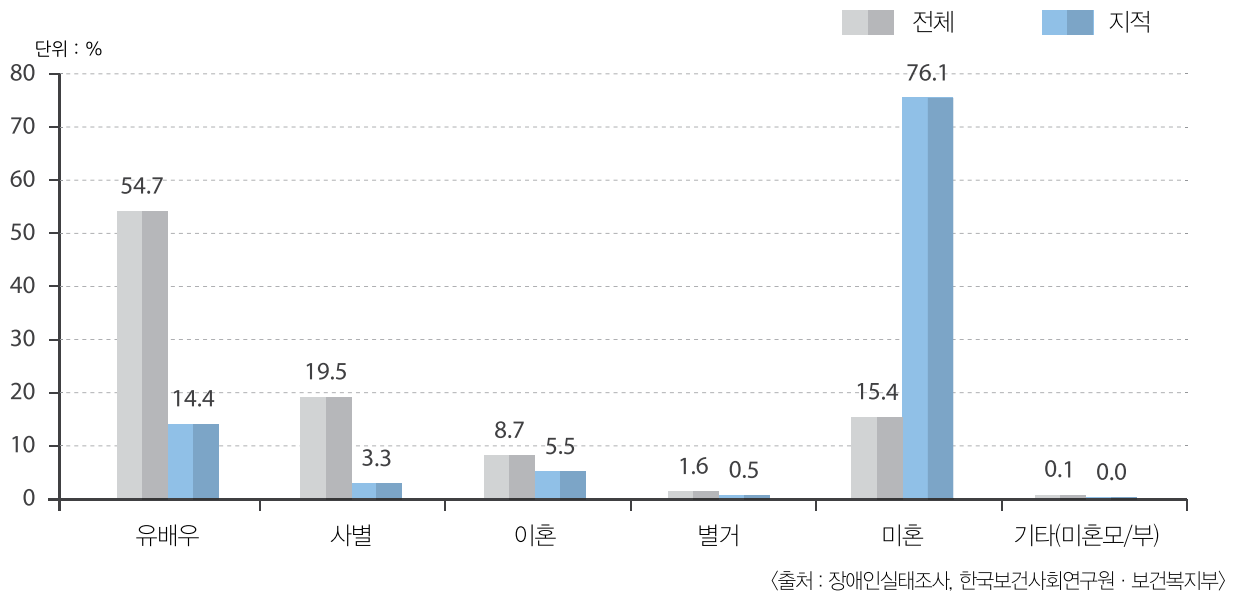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북			
	계	비율	남	여	계	비율	남	여
계	2,490,406	100.0	1,446,943	1,043,463	168,089	100.0	95,478	72,611
지체	1,281,497	51.5	741,089	540,408	85,468	50.8	48,196	37,272
시각	252,874	10.2	150,883	101,991	16,785	10.0	9,514	7,271
청각	250,334	10.1	136,850	113,484	18,600	11.1	9,760	8,840
언어	18,813	0.8	13,483	5,330	1,160	0.7	821	339
<b>지적</b>	<b>189,752</b>	<b>7.6</b>	<b>114,419</b>	<b>75,333</b>	<b>14,797</b>	<b>8.8</b>	<b>9,040</b>	<b>5,757</b>
뇌병변	250,862	10.1	143,637	107,225	16,412	9.8	9,256	7,156
자폐성	21,103	0.8	17,964	3,139	874	0.5	747	127
정신	98,643	4.0	51,309	47,334	7,136	4.2	3,893	3,243
신장	74,468	3.0	43,132	31,336	3,815	2.3	2,235	1,580
심장	5,833	0.2	3,646	2,187	371	0.2	225	146
호흡기	12,033	0.5	8,990	3,043	682	0.4	539	143
간	10,324	0.4	7,445	2,879	617	0.4	462	155
안면	2,685	0.1	1,555	1,130	199	0.1	110	89
장루·요루	14,116	0.6	8,683	5,433	831	0.5	479	352
뇌전증	7,069	0.3	3,858	3,211	342	0.2	201	141

〈출처 : 등록장애인 수 2015.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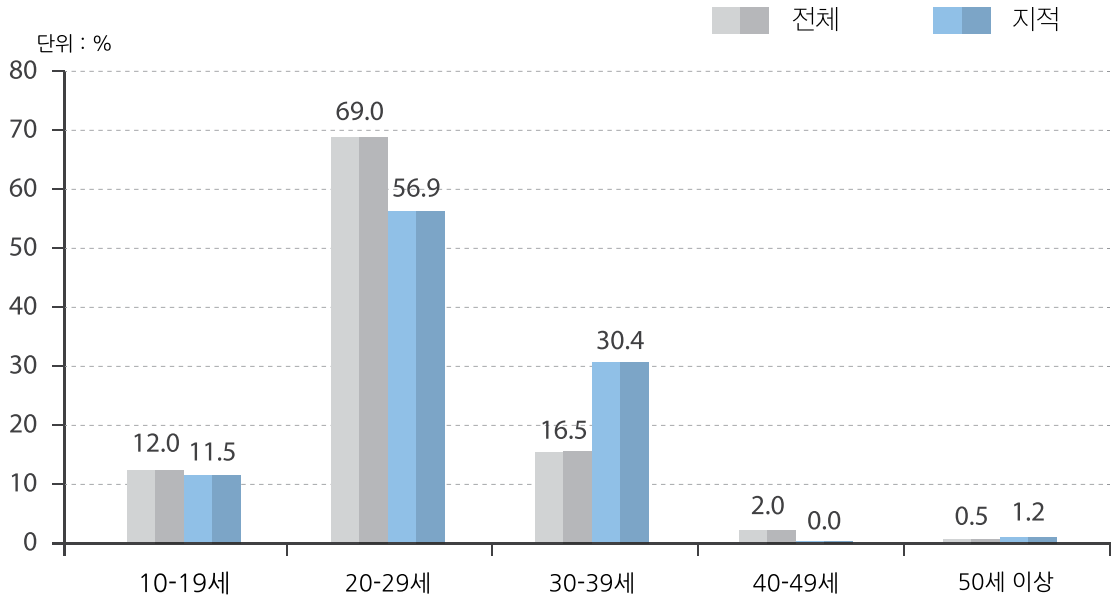
### 3. 지적장애인 결혼 및 가정생활 현황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평균적인 유배우자 비율은 54.7%이었으며, 지적장애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14.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적장애인의 경우 미혼인 상태가 76.1%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미혼상태의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1)



[그림 1] 장애인 결혼상태(2014)

- 지적장애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과 장애 문제가 51.3%,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0.9%, 결혼 생각이 없어서 6.6%, 가족의 반대 2.7%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장애인 실태조사 2014)
- 지적장애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연구(이민규, 2014)에서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65.7%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로는 결혼 후 부모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58.7%, 부부 관계 등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문제 57.2%, 자녀의 직업이나 낮은 수입 등 경제적 문제가 52.9%로 나타났음.
- 지적장애인의 결혼 시 평균 연령은 27.3세로 장애인 평균인 25.6세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만 20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한 비율이 56.9%, 만 30세에서 39세 사이에 결혼한 비율이 30.4%이었으며, 장애인 평균 30대의 결혼 비율이 16.5%인 것에 비해 지적장애인은 3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



〈출처 : 장애인실태조사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그림 2] 결혼 시 연령(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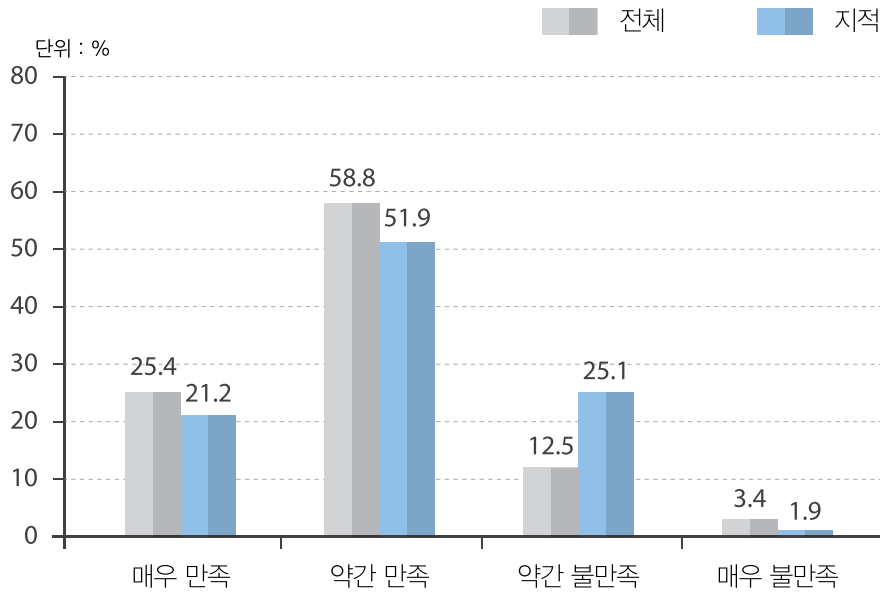
- 결혼한 지적장애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78.7%로 전체 장애인의 95.0%보다 낮았으며, 장애유형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음.(표 2)

[표 2] 자녀의 여부(2014)

단위 : %								
연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	95.0	95.4	95.8	94.9	97.2	91.0	78.7	-
아니오	5.0	4.6	4.2	5.1	2.8	9.0	21.3	-
연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	90.0	93.7	100.0	98.3	98.5	100.0	89.6	95.0
아니오	10.0	6.3	-	1.7	1.5	-	10.4	5.0

〈출처 : 장애인실태조사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5.4%, 약간 만족 58.8%로 84.2%가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은 매우 만족 21.2%, 약간 만족 51.9%로 73.1%가 만족하고 있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다소 낮았음.(그림 3)



〈출처 : 장애인실태조사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그림 3]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2014)

- 지적장애인의 이혼율은 1995년 2.1%에서 201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로 건강문제 · 장애 때문에 46.2%, 가족 간 불화 25.5%, 학대 또는 폭력 13.8%, 경제적 문제 7.0% 순이었음.(표 3)

[표 3]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

구분	전체	지적
계	100.0	100.0
배우자의 외도	13.9	1.0
학대 또는 폭력	7.8	13.8
성격차이	31.4	6.5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4.4	-
가족 간 불화	8.3	25.5
경제적 문제	20.3	7.0
건강문제 · 장애 때문에	12.0	46.2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0.6	-
기타	1.4	-

〈출처 : 장애인실태조사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4. 사례조사 내용 및 조사자 선정

- 사례조사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혼은 만남, 결혼과정, 결혼식, 부부생활, 임신과 출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생활은 가사, 자녀양육, 가족과 친지 및 이웃과의 교류, 경제(소득, 금전관리) 등을 조사하였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가정의 지원체계와 사례관리, 지원방안 등을 추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표 4)
- 지적장애인 부부 12가정과 대리양육자인 친척 1명,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이해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연구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적장애인 관련경험이 풍부한 관련시설의 종사자 6명을 사례조사에 참여시켰음.
-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달간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면접방법은 반구조화된 개방면접으로서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통해서 결혼, 가정생활,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에 관한 질문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방법을 사용하였음.(표 4)

[표 4] 지적장애인 부부 면접지침서

구분	내용
결혼	만남에서 결혼, 임신과 출산, 부부생활
가정생활	가사와 일상, 자녀양육과 교육,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의 어려움, 가족과 친지, 경제(소득활동, 금전관리 등)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	이웃과의 교류, 지지체계, 보건건강과 여가, 희망하는 삶
기타	지원체계, 사례관리, 지원방안

## 5. 지적장애인 부부 사례조사

### ① 지적장애인 부부의 일반적인 특성

- 사례조사에 참여한 지적장애인 부부의 가정은 총 12가정이며, 이 중 부부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가정은 7가정, 남편만 인터뷰에 참여한 가정이 2가정, 아내만 참여한 가정이 3가정이고, 한 명의 참여자는 지적장애인 부부의 가까운 가족으로서 아이의 대리양육자이며 지적장애인 부부가정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적장애인 부부의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에 참여시켰음.
- 지적장애인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2년 정도이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가정은 5가정이며, 평균 연령은 남편이 46세, 아내가 42세임.
- 장애등급은 2급이 12명, 3급이 12명이며, 거주형태로는 장애인생활시설(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부부가 3쌍, 공동생활가정 거주 부부가 2쌍, 일반주택 거주 부부가 3쌍, 아파트·빌라 거주 부부가 3쌍 그리고 일반 다세대주택 거주 부부가 1쌍임.(표 5)

[표 5] 참여 지적장애인 부부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장애 등급	학력	결혼 기간	자녀	거주	인터뷰 도우미
참여자 1	남편	50대	2	중졸	22년	없음	공동생활가정	생활재활교사
	아내	40대	2	중졸				
참여자 2	남편	30대	2	고졸	4년	없음	공동생활가정	생활재활교사
	아내	30대	3	고졸				
참여자 3	남편	40대	2	고졸	9년	없음	거주시설	시설장
	아내	40대	2	고졸				
참여자 4	남편	50대	2	초등 중퇴	3년	없음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아내	60대	3	무학				
참여자 5	남편	30대	2	무학	10년	없음	거주시설	시설장
	아내	20대	2	초등 중퇴				
참여자 6	남편	50대	3	초졸	18년	1명	아파트	시설장
	아내	50대	3	고졸				
참여자 7	남편	30대	2	고졸	9년	없음	아파트	시설장
	아내	30대	3	중졸				
참여자 8	남편	40대	3	고졸	8년	1명	주택	시설장
	아내	30대	3	고졸				
참여자 9	남편	50대	3	무학	22년	1명	주택	시설장
	아내	40대	3	초등 중퇴				
참여자 10	남편	30대	3	대졸	3년	1명	다세대 주택	없음
	아내	20대	2	고졸				
참여자 11	남편	50대	2	초졸	10년	없음	주택	팀장
	아내	40대	3	초졸				
참여자 12	남편	60대	2	초등 중퇴	25년	2명	빌라	없음
	아내	40대	3	초등 중퇴				
참여자 13							참여자 6의 친지(대리양육자)	

## 2 지적장애인 부부 사례조사 결과

### 1 결혼

#### ■ 만남과 결혼

- 지적장애인은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결혼상대자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아, 지인의 주선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적장애인의 결혼에 대해서 가족의 무관심과 반대로 인하여 결혼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 임신과 출산

- 지적장애인 부부는 양육능력이 부족하고 대리로 양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및 장애아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가 부족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 ■ 부부갈등

- 부부간의 이해와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 시 그냥 넘기거나, 자녀의 개입과 중재로 일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음.

## ② 가정생활

### ■ 가사와 일상

- 가사생활을 주로 하는 여성지적장애인의 가사수행 능력이 대부분 부족하여, 남편과 같이하거나, 대리살림에 의존하고 있었음.

### ■ 자녀양육과 부모 자녀 관계

- 지적장애인 부부는 자녀의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가족 및 친지와 합동양육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

### ■ 지적장애인 부부 자녀의 어려움

- 지적장애인 부부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어져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생활의 어려움 및 교우관계의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음.

### ■ 경제

- 지적장애인 부부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자녀교육비, 공과금, 식비 등에 주로 소비하고 있었음.

## ③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

### ■ 가족, 친지와의 교류

- 가족 및 친지와의 교류는 활발하지 못하며, 특별히 대리로 살림을 맡아주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 친구, 이웃과의 교류

-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웃과도 불화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웃과의 교류가 힘들었음.

### ■ 지역사회 교류와 지지체계

- 일부 지적장애인 부부는 무료급식, 반찬배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의논 할 대상이 없었으며,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부족하였음.

## ■ 여가 및 취미생활

- 지역사회 단체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 부부도 있으나, 대부분은 TV시청을 주로 하고 있었음.

## ■ 건강 및 보건

- 지적장애인 부부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좋지 않았고, 만성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었음.

## 6. 지적장애인 관련시설 종사자 사례조사

### ① 종사자 일반적 특성

- 지적장애인 관련시설 종사자는 총 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종사하는 시설의 유형은 거주시설 2명, 장애인복지관 2명, 장애인보호작업장 1명, 그리고 자립지원센터가 1명이었음.(표 6)

[표 6] 참여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성별	종사시설 유형	직위	종사기간 총 경력/ 지적장애인관련 종사기간
종사자 1	30대	여	거주시설	팀장	17/17
종사자 2	40대	남	보호작업장	원장	20/20
종사자 3	30대	남	장애인복지관	팀장	9/4
종사자 4	50대	여	거주시설	원장	9/9
종사자 5	40대	여	자립지원센터	사무국장	15/14
종사자 6	30대	여	장애인복지관	팀장	14/14

### ② 종사자 사례조사 결과

#### ① 결혼

##### ■ 이성교제와 결혼

- 지적장애인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가 제한 되어있으며, 주변이나 가족들의 반대로 이성교제가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이성교제 중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혼한 부부도 있었음.

- 지적장애인들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했을 때,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시설의 지적장애인 경우 결혼을 하면 자립이 가능하므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음.

#### ■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지역사회에 결혼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가족은 짐을 떠맡는 심정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기관 및 시설은 사회적지원의 부족과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 임신과 출산

- 지적장애인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 거주시설과 결혼생활

- 거주시설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부부는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공동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적장애인 부부가 거주시설에서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생활하는 경우는 바람직하나 자녀의 양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더불어 사는 것이 지적장애인 부부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 부부생활

- 성관계에 무지하여 부부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부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 ② 가정생활

#### ■ 가사

- 부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가사의 분담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음.

#### ■ 자녀양육의 어려움

- 지적장애인의 장애의 특성으로 자녀에게 발달지원이 잘 되지 않아 정상적인 발달지원이 힘들고, 학교에 등교시키기, 학습장 챙기기 등 기초적인 자녀의 학교생활지원이 어려워 자녀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 ■ 경제

-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유지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 할 경우 기초생활비 수급비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을 기피하고 있었음.

- 경제적인 개념이 없어 소비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욕구위주의 구매를 하고 있었고, 금전적인 사기 등을 당하고 있었음.

### ③ 지역사회지지 및 건강

#### ■ 이웃관계

- 긍정적인 이웃관계와 부정적인 이웃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적인 이웃관계는 지적장애인 가정의 청결이나 소음문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고 있었음.

#### ■ 지역사회 지지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지원체계 또한 미흡하여 지적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지원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④ 교육 및 상담지원

##### ■ 교육

- 지적장애인 부부가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결혼 전 교육, 성생활교육, 임신 및 출산교육, 자녀 양육, 일상생활, 가사 등의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기존의 교육은 비장애인이거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이 교육을 받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 사례관리 및 가정상담

- 지적장애인 부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및 전문상담사가 없으며,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 및 담당자가 없어 지적장애인 부부가 가정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담사례관리기관과 전문가정상담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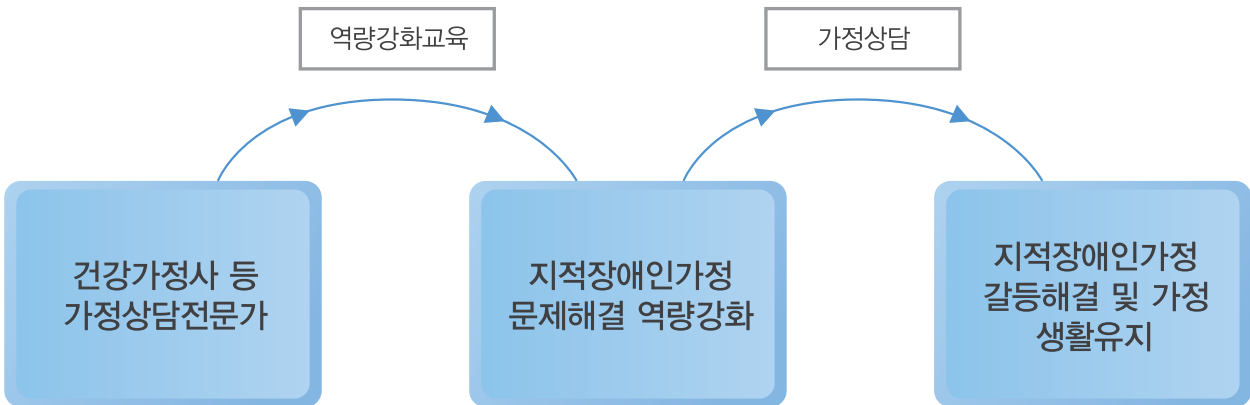
## 7. 지적장애인 결혼과 가정생활 지원방안

### ① 지적장애인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개선

- 지적장애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례조사 결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식은 결혼에 대한 반대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적장애인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지적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또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② 지적장애인가정 전문상담사 육성

- 지적장애인가정은 다른 장애 유형 가정과 달리 결혼과 가정생활 유지에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부부사이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가정상담사가 상담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지적장애인가정 전문상담사를 육성하여 지적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좀 더 쉽게 지적장애인 부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지적장애인 관련시설 종사자 및 협회 관계자 중 가정상담 업무를 하거나 가정상담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가정 전문상담교육과정 통해 역량강화가 된다면, 지적장애인가정 상담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그림 4)



[그림 4] 지적장애인 가정상담사 육성

### ③ 결혼과 가정생활 기초교육 강화

- 지적장애인은 교육의 기회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적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적장애학생만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니므로 인지와 이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학생의 교육 자료로서는 보완이 필요함.
- 학교 및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기초생활 지식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부부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는 지적장애인이 부부로서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교육이 시급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① 올바른 부부생활을 위한 성교육

- 지적장애인 중 부부생활에 대해 무지하거나, 올바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결혼적령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시급하지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교재나 도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적어 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강사 또한 육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없는 실정임.
- 지적장애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교재와 도구를 개발하고 성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해야 할 것이며, 성교육은 올바른 성생활, 임신, 피임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그림 5)



〈출처 : 2011/충남 행복생활 부모성교육(장애인부모) - 자녀는 부모에 기대어 산다〉

[그림 5] 성교육용 인형(Real People Dolls)

## ②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신기간을 유지 못하고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임신과 출산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결혼을 앞둔 지적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진단방법, 임신증상 및 주의사항,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방법, 산모 출산 후 관리, 신생아 수유 및 건강관리 등의 교육이 필요함.

## ③ 가사교육

- 가사능력의 부족이 지적장애인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된 가정이 있을 정도로 가사능력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사 즉 빨래, 청소, 식사준비 등의 집안일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적어 가사 수행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가사 능력은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능력이므로, 지적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기초적인 집안일을 중심으로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지적장애인도 요리할 수 있어요 (3월22일/부여군)  
작성자 충남인터넷방송



성인장애인 요리교실 5월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림 6] 지적장애인 요리교실

#### 4 전문교육기관 설치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맞춤형 교육 자료를 이용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현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강사와 맞춤형 교육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 기존의 결혼과 가정생활지원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강사에게 전문강사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할 교육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부부교육, 가사교육 등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보다는 개별사례교육 위주의 구성이 필요함.

#### 4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지적장애인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양육비 등의 경제문제, 양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 주위의 편견,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음. 그리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와 과제 수행의 어려움, 학부형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1 자녀 양육파트너

- 지적장애인 부부가 자녀를 양육 할 때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올바른 발달지원을 하지 못해 자녀의 발달이 늦어지거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함.
- 지적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시기에 맞게 발달지원 및 올바르게 양육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은퇴노인이나 자원봉사자와 1:1 자녀양육 파트너 결연을 맺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장애인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 ② 자녀 교육지원 강화

- 지적장애 부모는 학부형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자녀 교육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적장애인 자녀는 학습지도, 준비물, 등하교 문제, 청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 자녀가 입학하는 교육시설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적장애인 자녀와 같은 학년의 학생이 있는 비장애인 가정과 가칭 '행복다리 가족결연'을 하여, 부모끼리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및 애로사항을 상의하고 해결한다면 지적장애인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서로서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⑤ 지역사회와의 연계

- 지적장애인 가정은 취약계층으로서 특별히 중점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종사자 사례조사결과에서도 지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사례관리가 필요함.
-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가정이 읍면동 복지허브화<sup>1)</sup>의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지적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지적장애인 가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들 표준모델을 토대로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지적장애인의 결혼과 가정생활 문제해결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며, 2018년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경상북도 전 지역에 시행되기 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적장애인 결혼과 가정생활지원 통합사례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임.

1) 읍면동 복지허브화 :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에 복지인력과 조직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개발하여 제2차 사회보장정보위원회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까지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수요자 발굴을 통하여 맞춤형 생애주기별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해 건강, 가족관계, 경제, 고용,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위해 공무원과 다양한 민간기관의 관계자가 모여 다각적으로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미옥 · 박미숙 · 박현정. (2015). 지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이민규. (2014). 지적장애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집위원 류승완, 김동화, 정상기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잘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